오늘의 禪語

‘바로 묻고, 즉시 답한다’

⑬ 선문답과 법거량

깨달음의 세계, 선의 세계에 대하여 스승과 제자 또는 선승과 선승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선문답(禪問答)’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법거량(法擧量)’ 또는 ‘법담(法談)’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에 대한 토론입니다.

선문답이나 법거량은 대부분 1:1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혹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안거나 동안거가 시작되는 결제일이나 끝나는 해제일에는 조실스님이 많은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문답은 논리나 상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토론방식이나 대화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비논리 · 무논리로 전개되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그 이유는 선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세속의 논리와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속에서는 지식과 물질적인 소유를 추구하지만 선은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세속은 애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선은 무집착을 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선이 추구하는 바와 세속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대화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선문답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논리로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의 한 예에서 그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 선사(雲文, ?~949)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진리)입니까?” 운문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간시궐(乾屎橛)이니라.”

간시궐이란 옛날 재래식 변소에 있는 ‘긴 막대기’입니다. 보통 ‘마른 똥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부처(진리)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 막대기”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만 저만한 파격이 아닙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논리나 상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문답은 즉흥적으로 내뱉는 궤변이 아닙니다. 선문답에는 대단히 치밀한 선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 일반적 논리가 아닌 특수한 선의 논리입니다. 선의 논리는 공(空) · 불이(不二) · 무분별 · 무집착 · 무심 · 일체유심조 · 중도 · 무심(無心) 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화두나 선어가 이 기준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깨달은 선승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마른 똥 막대기’란 어디에 해당될까? ‘일체유심조(고정관념 타파)’에 해당됩니다.

부처나 진리, 깨달음은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성스럽게 여기는 대상입니다. 무엇이 부처(진리)인지 묻고 있는 이 스님은 ‘성스럽다’는 고정관념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운문 선사가 ‘마른 똥 막대기’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스러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집착을 타파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문답이나 법거량은 앞에서 보았듯이 대체로 1:1일로 진행되고 질문과 대답도 1회나 2회에서 끝납니다. 아무리 길어야 3~4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은 깨달음을 열어주는 선문답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미혹하게 하는 진부한 토론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선문답은 즉문즉답(卽問卽答)으로 진행됩니다. 잠시라도 생각한다거나 머뭇거리면 그것은 분별하는 마음, 분석적 사고(알음알이)에서 나온 말이 되므로 깨달은 자의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적인 말이나 분별심에서 나온 말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생각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

파격 언어 통해 고정관념·집착 타파 깨달음으로 인도

선문답의 역할과 목적은 질문자(제자)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함이 그 첫째입니다. 파격적인 언어를 통하여 막혀 있는 관념을 타파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의 깨달음을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실히 깨달았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판단하는 검증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제자의 오도송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실력을 떠보기 위한 선문답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승과 고승 사이에 펼쳐집니다.

선은 화두를 참구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저 수행자가 정말 깨달은 것인지?’ ‘화두를 타파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몇 년 참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대학입시처럼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법거량 밖에 없습니다.

법거량을 통하여 상대방의 실력을 간파하자면 선사의 안목이 탁월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능한 선사는 상대방의 말 한 두 마디만 들어보면 곧바로 그 경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법거량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확인되면 스승은 제자에게 인가증명을 내립니다. 이 때 스승은 그 징표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발우나 가사를 하사합니다. 물론 제자로서는 인생 일대의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지만 마음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관문(법거량)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나와 더 치열한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신행게시판

●**해인사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합천 해인사가 4월 12일 오전 10시 ‘2008 호국팔만대장경법회’를 봉행한다. 올해로 48번째를 맞는 법회는 ‘부처님 가르침 훤히 밝혀져 온누리에 펼쳐지이다’를 주제로 해인사 본말사 스님과 전국의 불자들이 참석해 수행원력과 신앙심을 고취하고 호국호법의 의미를 되새긴다. 법회에서는 국가의 안녕을 축원하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발표된다. 법회 전날인 11일에는 특별 철야기도가, 13일에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자비행전 및 비로자나부처님 광명철야기도가 봉행된다. 참가비 3만원. (055)934-3105

●**강남포교원 춘계 사찰순례**=서울 강남포교원이 4월 20일 강진 무위사로 춘계 사찰순례를 떠난다. 강진 무위사는 국보 제13호 극락보전이 유명한 사찰로 내부 벽화는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극락보전에서는 아미타삼존불과 수월관음도를 만날 수 있다. 벽화는 보존각에 진열돼 있다. 동참금은 3만원. (02)539-2631

●**능인선원 춘계 삼천배 철야용맹정진**=서울 능인선원이 4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대법당에서 춘계 삼천배 철야 용맹정진 기도를 봉행한다. 삼천배 기도는 과거 · 현재 · 미래의 3000 부처님께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려 참회하는 기도법이며, 능인선원에서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철야 용맹 정진을 하고 있다. 동참금은 1만원. (02)577-5800

●**석왕사 스리랑카 성지순례**=부천 석왕사가 4월 16~21일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떠난다. 스리랑카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불상봉안법회가 이번 성지순례의 주요행사. 이 외에 스리랑카 최초의 고대왕국이 자리했던 아누라다푸라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최초의 불교 전래지 마힌드라,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담불라 석굴사원 등을 거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캔디의 불치사, 부처님의 법음이 그대로 전하는 패엽경이 현존하는 알루비하라와 캘랜니아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 전역의 불교성지를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다. (032)663-7771~3

●**선운사 만세루 개방**=고창 선운사가 3월 30일~4월 6일 만개하는 동백꽃을 구경오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선운산에서 자생하는 차를 무료로 마시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만세루를 개방한다. (063)561-1422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단박깨침(頓悟)’으로 성불

⑬ 사가라 용왕의 딸 용녀

<법화경> ‘제바달다품’에는 악인의 대명사인 데바닷다(提婆達多)와 암컷이자 축생인 용녀(龍女)의 성불을 밝히고 있다. 악인이나 여인도 성불할 수 있는 도리를 담은 이 법문은 대승불교와 선종의 핵심이기에 깊이 참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용녀의 성불에 대한 줄거리만 요약하고자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데바닷다에게 수기를 마치시자 다보여래를 따라온 지적(智積)보살이 다보여래께 본래의 국토로 되돌아가자고 말씀드린다. 그러자 석존께서는 지적보살에게 문수보살과 묘법(妙法)을 서로 논한 후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큰 바다의 사가라(娑竭羅) 용궁(龍宮)에 사는 문수보살이 수레바퀴만한 1000잎의 연꽃에 앉아 나타난다. 그는 다보여래와 석존께 예배한 후 지적보살과 인사를 나누고 문답을 시작한다.

지적보살은 용궁에서 문수보살의 교화를 묻고, 문수보살은 항상 <법화경>을 설해 왔으며 교화한 중생의 수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한다. 문수보살은 “사가라 용왕의 딸은 여덟 살에 불과하지만 지혜롭고, 여러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잊지 않고 간직하여 정(定: 사마타) · 혜(慧: 위빠사나)를 갖추어 ‘물러남이 없는(不退轉)’ 경지를 얻어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지적보살은 석존께서도 무량겁에 어렵게 고행하여 겨우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용녀가 단박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렵다며 의심을 품는다. 그러자, 그 말이 끝나지도 않은 사이에 용녀가 홀연히 용궁에서부터 부처님 앞에 출현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를 읊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것을 본 사리불이 용녀에게 질문한다. “여자의 몸은 때 묻고 더러워서 다섯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여자의 몸으로 성불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자 용녀는 한 개의 보배 구슬을 끄집어내어 부처님께 바쳤으며, 부처님은 즉시 이것을 받으신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을 향해 “나의 성불은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받으신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자, 금방 여자의 몸이 남자로 변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덕을 갖춘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하자 모두 깨달음의 예언을 얻고, 그 불국토인 무구(無垢: 더러움이 없는)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 이를 본 지적보살과 사리불을 비롯하여 많은 대중이 모든 것을 납득하고 믿게 된다.

이와 같이 용녀는 ‘성불은 오랜 시간 괴로운 수행 끝에 얻어진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을 직관함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선종의 수증론(修證論)인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과 맥을 같이 한다. <법화경>은, 깨달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중생의 지레짐작일 뿐임을 지적한다. 사리불의 입을 통해 ‘여인은 범천왕 · 제석천왕 · 마왕 · 전륜성왕 ·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여인 오장설(五障說)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논파하고 있는 것도 여인성불을 강조하는 논법이다.

마음 직관 통해 즉각적인 깨달음 얻어

男女·生死 넘어선 본래면목 깨달아야

용녀의 성불을 통해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본래성불’이라 하는 법문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에서 용녀의 ‘단박 깨침’(頓悟)에 대해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만약 한 생각에 결정하여 믿고 받아들인 자는 찰나를 두지 않고 문득 깨달음에 올라간다(若一念決定信受者 不間刹那 便登覺位)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유마경>에서 유마 거사가 ‘너희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자체가 곧 출가이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족한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이는 본래 사람이 가진 마음자리, 즉 불승(佛乘)자리는 이미 깨달음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래면목에는 남과 여,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기에, 그러한 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곧바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승(一乘) 도리를 믿지 않고서는 돈오란 불가능하다.

김성우 객원기자

기획 PR

경주 천선사 ‘우담바라’ 활짝

기존것과 달라… 전 세계 10여곳에만 피어

경주역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동방동 831-99번지 소재 남산 천선사(대한불교 선종 총무원, 원장 정관 스님)는 그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찰은 아니지만 불자들이 자주 찾는 명찰로 알려져 있다.

“여기가 천선사라네, 해탈고 넘어 감로수에 몸씻고 자기부처 찾아 가소”란 글이 생각나듯 사찰 입구에는 감로수가 흐르듯 담장을 휘감고 금붕어들이 불자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천선사는 비록 심산유곡은 아닐지라도 사시사철 맑은 기운이 넘치는 곳이다.

남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 절 입구에서부터 향 내음이 가득한 천선사에는 스님의 목탁소리와 은은한 불경소리가 이곳이 곧 불국정토임이 가슴에 와 닿게 한다.

창건한지 20여년 불과한 천선사 대웅전은 명승 고찰과 다름없이 삶에 찌들린 중생들을 불국정토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아하면서도 인자한 삼존불상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벗고 참선에 들게 한다.

그런데 최근 이 삼존불상 부처님 가운데 중앙의 아미타부처의 왼쪽 손 부분에 금세기 보기드문 우담바라 꽃이 펴 불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천선사 아미타 부처에 핀 ‘우담바라꽃’ 빨간원내 사진 확대

지난 1일 정관 스님이 발견한 우담바라 꽃은 일반 사찰에 핀 새싹과 같은 외줄기 우담바라 꽃과는 달리 30여개의 하얀 꽃이 송이송이 피어 있는 것이 마치 새 깃털처럼 부드러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또 우담바라 꽃을 친견한 불자들은 “그토록 깨끗한 아미타부처님의 몸에서 우담바라 꽃이 송이송이 피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울뿐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 수 가 없다”며 감탄했다.

정관 스님은 “요즘 불교계가 어지러워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열심히 포교하라는 말씀인 것 같다”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3천년만에 한 번밖에 필 수 없다는 불교의 상징적인 ‘지혜와 자비의 꽃’ 우담바라 꽃이 핀 것은 정말 신비롭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스님은 “도(道)를 향해 가는 길은 바로 기도이며 기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대단한 일로 마음을 비우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삶을 반성하고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거룩한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이 곧 기도”라고 밝히고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가 너무 상술적인 것 같아 좀 더 관찰한 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 이었다”며 겸손함을 비치기도 했다.

정관 스님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이 같은 모양의 우담바라가 핀 곳은 전 세계적으로 10여곳에 불과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면서 “평생에 단 한번 볼까말까한 우담바라 꽃을 친견하는 것은 더 없는 행운으로 모든 대중들이 우담바라 꽃을 친견하여 만사형통하고 복록이 진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의 경전에는 ‘우담바라’가 3천년만에 한번씩 피어 짧게는 3년(1천일), 길게는 10년(3천일)을 유지한다는 꽃으로, 우담바라 꽃은 석가여래나 지혜의 왕 전륜성왕과 함께 나타난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우담바라 꽃은 흔히 ‘부처님을 의미하는 상상의 꽃’이라 하여 상서로운 징조로 받아들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1979년 강원도 모 사찰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선사는 이 신비스러움을 봉축하기 위해 내달 10일부터 ‘우담바라 대 봉축 천일기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윤수 기자

〈大慶日報 2007년 10월 24일자〉

대한불교 선종 남산 천선사 ▪연락처 : 054)748-0462 , 016-509-0462 (경북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